

근현대 음악 1897년~현대

▶ 근현대 국악을 감상하고 음악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갑오개혁 이후 일제 강점기까지 국권 강탈, 전쟁, 서양 문물 유입 등으로 전통 음악의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해방 이후에는 우리 음악을 지키기 위해 여러 사람이 노력했다. 오늘날에는 전통 국악과 함께 다양한 장르로 재탄생한 새로운 국악이 일상에 자리 잡고 있다.

일제 강점기



▶ 일제 강점기 국가 주권 침탈



▶ 궁중 음악의 위축

광복 이후



▶ 공연장 양식의 장르 생성



▶ 창작 국악곡, 크로스오버 국악 등장

창작 국악

신벚놀이

'신벚놀이'는 원일이 작곡한 곡으로 경기벚노래 가락을 주제로 하였다. 전반부는 여러 가지 타악기와 다양한 장단으로 재미있게 구성하였고, 후반부는 근거리장단의 경기벚노래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찬 기상을 표현하였다.

❖ '신벚놀이'의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해 보자.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for five instruments: 피리 (Piri), 징 (Jing), 장구 (Janggu), 북 (Buk), and 대고 (Daego).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B-flat and E-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12/8. The score is divided into three measures. The Piri part is in the treble clef, while the other instruments are in the bass clef. The Janggu part features a complex rhythmic pattern with many rests and accents.

크로스오버 국악 **헤이야**

'헤이야'는 류형선이 작곡한 곡으로, 민요 옹헤야의 가락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곡이다. 해금과 기타, 베이스, 키보드, 젬베, 피리, 가야금 등으로 연주한다.

❖ 크로스오버 장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헤이야'를 감상해 보자.



▲ '헤이야'를 연주하는 해금 연주자 '강은일'



❖ 크로스오버로 만들어진 다양한 국악곡을 조사해 보자.



▲ 범내려온대(이날치)



▲ 와대베(악단광칠)

❖ 크로스오버 국악이 국악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토론하여 보자.